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국가신용평가 하락과 무역적자 전환으로 사면초가 직면

□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‘안정적(stable)’에서 ‘부정적(negative)’으로 하향 조정함.

- 무디스는 신용평가 하향조정 배경에 대해 현재 일본이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일본의 경제·재정 정책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소할 만큼 충분히 강구되지* 못한 것으로 평가함.
- 또한, 무디스는 중단기적으로 일본에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위기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함.
- 이에 따라 무디스는 현행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‘안정적(stable)’에서 ‘부정적(negative)’으로 하향 조정함.

* 일본은 현재 연금지출이 국가예산의 30%를 차지하며, 인구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 등 부담액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 축소를 추진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직면

□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전체 21개 등급 중 위에서 3번째인 Aa2이지만 정부의 정책 실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실제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임.

- 지난 1월 27일 신용평가기관인 S&P도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8년 9개월 만에 AA+에서 AA-로 한 단계 하향조정한 바 있음.
- OECD는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일본의 전체 국가채무가 올해 말이면 국내총생산(GDP) 대비 204.2%로 악화되고, 내년에는 210.2%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
- 이는 2008년 말의 173.9%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 미국의 98.5%, 독일의 81.3%, 그리스의 136.8%, 아일랜드의 112.7%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.

□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(2/23)는 전통적인 무역 흑자국으로서 국제유가 상승 여파와 엔고로 22개월 만에 무역적자로 전환함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사면초가에 봉착함.

- 지난 1월 무역수지가 4,714억엔의 적자를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22개월만에 적자로 전환됨.

(시사통신 2/22 등)